

+ 찬미 예수님

저스틴 신부님의 6월 20/21일 (토,일) 미사
강론

한국어
번역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께 드리는 찬미와
영광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이 저희에게 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잃기(Losing the Fear of
Speaking the Truth)**

먼저,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성당 안의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것을 인종 차별과 트랜스젠더리즘,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 우리는 지금 몇차례에 걸쳐 자기 검열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중 몇은

화를 내고,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사실을 말하고도 여전히 오해를 받게 될까? 여러분 중 많은 분들과 이야기 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어떤 진실을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관계를 잃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당신을 모욕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서로 공격하는데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고무적인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진실을 말하길 원하시고 요구하시며, 그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네가지 이유를 주십니다.

- 1)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위에서 선포하여라”(마태10:27). 이 말들의 맥락은 예수님께서 사명으로 열두 사도들을 내보내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에게서 받은 모든것을 공유해야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공공 재산이 되는 것이지 소수의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Daniel Mueggenborg, *Come Follow Me*, 206). 그분의 개인적인 사랑, 가르침, 형성은 모두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선물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 하느님을 받았으며, 우리는 그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실과 통찰력을 ‘가정에서 부터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선포된 것은 열린귀와 뒤머거리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일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서 덧붙이시기를 “욕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욕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마태10:28)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죽인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악으로 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 (CCC 366, 1022) 이므로, 존재를 멈춘다는 의미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으로 변하면 죽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할 때는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 있지만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선택할 때는 죽습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욕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즉 당신뿐입니다.
- 그래서 그분께서는 열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진실을 말한다면 영혼, 바로 그 자아를 잃게 될 것이다.

‘영혼을 파는 것’이라는 표현 아시죠? 그것은 이익을 대가로, 군중들에게 호감을 받고 받아들여지는 대가로 나쁜 일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거나 말할 필요가 있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마다 영혼을 부분적으로 팔게 됩니다.

-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은 성격을 형성합니다. 진실을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은 정직의 습관/ 가치를 쌓아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반복적인 행동은 그들의 성격,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반대되는 특성, 거짓말의 악덕을 쌓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거짓말은 그 사람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http://thejustmeasure.ca/2017/11/12/were-born-good-but-not-virtuous/>). 우리는 우리가 하는대로 됩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하는 모든 도덕적 선택과 함께 작용합니다. 작지만 용감한 한 걸음을 내딛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만약 그들이 다시, 그리고 또 다시 한다면 결국 용기가 자라고, 용감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과 함께 간다면, 양심이 “이건 옳지 않아”라고 말할 때 침묵을 지키고, 비겁한 행동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겁쟁이가 됩니다.

캐나다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은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사람들이 군중과 함께 갔던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들과 싸우는 방법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전체[소련]가 거짓말에 휩싸였다. 국민의 3분의 1일 정부 정보원이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거짓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덮는 것으로 시작한다. 당신은 당신의 성격을 파괴한다... 누락의 죄를 통해 약해진다. 그리고 약해지자마자 사람들은 당신을 미친듯이 조정할 수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5n8zn-R10qM>).

- 그는 여러분이 생리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도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태양 광선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함께 모여서 강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 3)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두 마리가 한 닢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마태10:29-31).
참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고기 중 가장 싼 고기였고, 1 페니는 하루
임금의 1/16이었습니다 (Mueggenborg, 207). 그래서 만약 하느님께서 그런
하찮은 것까지 신경을 쓰신다면, 그분께서는 진실을 말하려는 우리를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 진실을 말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는 나의 모든 걱정과
당신의 걱정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는 어려움에서 좋은 것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진실을 말할때,
선은 그분으로 부터 나올 것입니다(Cf. Rom 8:28)! 이것이 장려하는
것입니다!
- 4)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마태10:32-33).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한14:6), 우리가 진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해야하는 진실을 부정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부정할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
있으라고 강요하시지 않을 테니까요.

- 나는 항상 이런것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반응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반응을 더 두려워해야하는데, 그분께서 나를 헤쳐서가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이 그분에게서 분리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Cf. Mt 7:3-5).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더러운것을 치우는 것을 돕기 전에 우리 자신의 더러움부터 치워야 합니다.
- 하지만 나는 당신을 준비 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실을 말할 때 하는 일은 아마도 우리 모두의 입맛에 매우 맞을 것입니다. 내 질문은, 우리가 여러분의 세계관에 도전하는 문제들에 대해 진실을 말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당에서의 스캔들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회적으로, 우리는 인종 차별이나 성전환 등과 관련하여 질문할 수 있는 같은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 보다 정치적으로 옳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 교회의 한 가지 문제는 여전히 많은 주교 사제들, 평신자들 사이에 스캔들이 있을때 마다 교회의 명성을 보호하거나, 혹은 그것을 경시하기 위해 많은 주교, 사제,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여전히 본능적이지만 매우 해로운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세상의 도덕적 결함을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함도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해 하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계층 구조에 있는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약해지고, 우리의 세상에서

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 용기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꺾데기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가지 예가 있습니다.

-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존 앨런 기자는 5월1일 3명의 성직자를 포함한 6명의 바티칸 직원이 모두 “바티칸의 국무장관이 전 하드로의 창고 일부를 사기 위해 매년 피터 펜스 수집품에서 2억 2천 5백만 달러를 사용한 런던의 토지 거래의 용의자” 였기 때문에 해고 되었다고 썼습니다. Allen은 “발화의 이유는 설명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전 세계의 교구 사제들이 교회 앞에 서서 피터 펜스 [10월4일]에 대한 지원을 호소해야 한다면, 그들 역시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https://cruxnow.com/news-analysis/2020/05/sooner-or-later-pope-francis-will-have-to-face-the-malaise-of-reform/> Listen also to “Sex, Money, Power: The Challenge of Church Reform”: <https://catholicherald.co.uk/behindtheheadlines/episode-004-sex-money-power-the-challenge-of-church-reform/>).

- 또 다른 예:캐나다 사제 Fr. Raymond De Souza 는 “우리는 주교들이 진실을 말했다고 믿었다. 어떻게 된 것인가?” 그는 워싱턴의 우엘 추기경이 2018년 맥캐릭 전 추기경의 성학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한 사례 중 다른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년 전 우엘은 이미 맥캐릭에 대한 공식적인 불만을 듣고 사도 낭시오에게 알렸습니다. 우엘은 이러한 불일치를 기억의 실수라고 설명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https://catholicherald.co.uk/we-used-to-believe-bishops-told-the-truth-what-happened/>) .

- 우리는 이 은폐를 덮고 덮는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온라인에서 답변을

요청하고, 청원서에 서명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것이 공개되면,
개선해야 할 건강한 압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 진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속죄할 때 치유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되찾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캐나다 소속 학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진실에 관한 한, 우리는 사제, 형제, 자매에 의해 엄청난 양의 악이 저질러 졌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적, 성적 학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소속 학교를 문화 집단학살의 중심 요소라고 불렀고, 사람들의 제도, 언어, 문화, 종교를 없애기 위해 그들의 역할을 했습니다(http://www.trc.ca/assets/pdf/Honouring_the_Truth_Reconciling_for_the_Future_July_23_2015.pdf).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이것은 예수님께나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대인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영화 *In the Spirit of Reconciliation*를 보면, 주택가에서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과 교회를 믿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바티칸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모든 주교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기숙학교의 선교사들이 모두 사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의 눈 속의 가시를 빼기 전에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의 미덕에 대해 말하고, 말하는 공동체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강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네가지 이유를 주십니다: 1) 우리는 예수님과 진실을 우리 자신안에 간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공유되어야 합니다; 2)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3)우리가 정치적으로 옳은 것에 도전할 때 하느님께서서는 악에서 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4)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부정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론 말씀도 은총으로 가득한 시간이었기를
기도드립니다.

COVID-19 시기에도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신 모든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제를 위한
기도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사제들이 하는 모든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